社 說

혼란스런 개정 선거법

요즘 행정기관 공직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왜냐하면 개정 선거법이 어느 선까지 적용되는지 그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곤혹스럽기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하루에도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가 수십건씩 빗발치고 있다.

더욱이 9월과 10월은 각종 행사나 축가가 줄줄이 계획되어 있다. 포천시가 개최하는 행사만 하더라도 대략 7~8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를 겨냥한 기부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금권·관권 선거를 차단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또 선거때만 되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선심성 사업을 미연에 방지해 공명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8월4일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있는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과 제112조, 제113조, 제115조항이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 체육 등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지급해 왔던 부상이나 시상금, 식사, 기념품 등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같은 법 조항과 관련해 그동안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던 행사를 놓고 절차와 규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천시 관계자들은 고심중이다. 또 인근 의정부시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됐던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체육대회를 취소했고 안양시민과 군포시, 군포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정 선거법을 의식해 체육대회 등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개정 선거법은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이들 관계자는 또 포천시문화상 같은 경우 수상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시상금마저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개정 선거법을 통해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법 취지는 더 매우 좋다. 또한 개정 선거법과 같은 강한 법 집행으로 주민의 대표 혹은 선량한 일꾼을 선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 적용으로 인해 시민화합 차원에서 마련되는 각종 행사나 축제가 너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또 오랫동안 지역에서 개최되어 온 행사마저 열리지 못하게 한다면 선거법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개최해 온 행사나 대회인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부상은 그야말로 권위를 상징한다. 또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 등에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이같은 경우 개정 선거법을 일부 조항을 재개정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은 선거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화합을 위한 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마련해야 한다.

의정부시 제34회 시민의 날 행사 취소

개정 선거법 위반 소지 많아 동별대회 축소

의정부시는 10월 9일로 예정됐던 '제34회 시민의 날' 행사를 동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市가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는 취소하기로 했다.

이같이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게 된 것은 지난 8월4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체육대회 지원 예산의 용도와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市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市는 종합운동장에서 매년 실시하던 동대항 체육대회를 올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9월초부터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선거법에 입상선수에 대한 부상(시상금 포함)이나 초청 내빈과 주민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을 일체 금지한다는 규정과 참가선수에 대한 식사, 훈련비, 운동복 등 필수 경비의 집행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예전과 같이 종합체육 대회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시민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올해는 각 동별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10월8일을 전후해 개최되는 올 동별 체육대회는 각 지역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행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공모

수도작, 원예, 축산, 농산물가공, 과수, 임업 부문

포천시는 농업의 품질고급화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소득을 창출하는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기 위한 농업인대상을 시상한다.

올해로 5회를 맞는 포천시자랑스런농업인대상은 수도작, 원예, 축산, 농산물가공, 과수, 임업 등 6개부문 6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포천시청 농축산과, 지역농협(축협, 산림조합, 개성인삼조합 포함)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수상신성서 1부, 이력서 1부, 기타공적증빙서류 1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 산업담당 또는 포천시 농축산과 농정담당(031-538-2328)에게 하면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후배전우에게 근무의욕 증진 기회

8사단 수색대대, 수색인의 날 개최

육군 8사단 수색대대는 매년 9월 둘째주 일요일마다 부대 전역·전출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색인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수색대대는 선배 수색인과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부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선·후배 전우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근무의욕 증진을 위해 해마다 수색인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선배 수색인들은 후배들의 특공무술시범을 본 후 실제 병사들이 생활 하고있는 내무실과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예전 군 생활을 회상하고 현 장병들의 부대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대 장병과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간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대창설 멤버로 복무한 심용대(56)씨는 "수색인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색인의 날'이면 꼭 부대를 찾는다"며 "수색인의 날은 내가 수색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하루다"고 강한 애대심을 보였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鄕土원로초대석 ⑫ ……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이석구

이 석 구

포천향토사연구소장

'사람다운 사람' 교육 위해 평생 헌신

"문화는 찾아야지 저절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65년 포천 외북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 받아 30여년을 포천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이석구(70.사진) 포천향토사연구소장의 포천사랑은 1970년 교육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 포천관내 유적지를 돌아보면서부터 시작됐다.

연천군 궁평초등학교에서 3년을 제외하고는 오직 포천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해온 이 소장은 "역사적으로 가난한 고장이지만 인심이 후덕하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라며 포천을 설명한다.

포천에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관내 문화유적지를 순회하면서 느낀 것은 조상들의 우수성과 탁월함이었다.

이 소장은 교육자로서 지역문화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1978년 포천문화원 창립에도 적극 참여했다. 포천예술인동우회를 창립하여 8개 분과로 운영해왔다. 13년 동안 포천예술인동우회를 맡아 운영하면서 포천예술의 산파 역할을 감당했다. 8개 분과중에서 연극, 미술, 국악, 무용, 미술 분과등이 예총 각 지부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현재 포천시 교육자 모임인 삼락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있다. 도덕과 인성교육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 소장은 최근 교육계의 부정적인 실태를 지적한다. '학교담임보다도 과외교사를 더 좋아하는 사회'라며 이는 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사들이 좀더 애정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포천의 학생들은 순수하여 조금만 적극적으로 지도한다면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일선학교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똑똑하고 착하며 열심히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다고 한다.

최근 포천시민대종 제작추진에 대해 이 소장은 "포천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종을 만드는 데 박수를 보내며 올해 추진 못하면 내년까지라도 연장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정책이 좀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방향은 근현대사의 주요인물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소장은 1년에 1회 '포천문화', 1년에 4회 '포천문화사랑' 편집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 10년동안 편집책임자로 활동했다고 한다. 포천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책자의 편집을 통해 포천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했다.

이 소장은 "문화는 내가 찾아가야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며 "포천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반월아틀홀 개관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소장의 포천문화에 대한 사랑 위에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포천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물포커스

김 제 동

변호사

"항상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제동(44.사진) 변호사는 포천시 일동면 출신이다.

포천시 고문변호사, 포천상공회의소 자문변호사, 포천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인권분과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일동면에 거주하면서 농민들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김 변호사는 "민주주의를 외치며 기존 권력타파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현실에서 국민의 대표자라는 생각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포천지역 발전에서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는 재원과 인재가 필요하다"며 "재원과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외지인들이 포천에 공장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림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들 사업주의 자녀들이 관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토박이 자녀들의 경우 공부를 잘하게 되면 의정부나 서울로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사업주들의 자녀들에게 포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요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업주의 우수한 자녀들이 이곳 학교를 졸업해야만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토박이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다. 지역 사업주의 자녀들이 지역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면 학교발전기금도 기부하게 되고 지역의 명문학교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역 토박이들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연대의식을 함양하여 포천시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포천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0년 창간 당시부터다. 여러 사주의 변화를 거쳐 현재 최호열 발행인이 인수하면서 정기적으로 신문을 발행하여 지역사회의 중요한 여론매체로 성장한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특히 기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인 기업의 약점을 포착해 돈을 뜯어내는 구태를 완전히 근절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특히 최호열 발행인이 사재를 털어 지역사랑과 정론지 추구에 대한 굳건한 소명의식을 갖고 포천지역의 중심언론으로서 성장시킨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포천신문에 작은 도움이 될까해서 4년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포천시민들에게 법률가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적인 부문에 문제가 될 때 사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사건이 터진 후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법률자문에는 비용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

김 변호사는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지역현안사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건전한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포천시민들에게 꿈과 비젼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김 변호사는 최근 포천출신 공무원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한다. 포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 지역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보다 많은 공무원을 배출하여 이 지역 행정은 이 지역 출신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출신 공무원의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포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토론의 장 마련해 달라"

권 혁 윤

(주) S&K 대표이사

"포천사람들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진취적으로 변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96년 포천시 자작동에 (주)S&K를 설립하고 년간 매출액 50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천신문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권혁윤(48·사진) S&K 대표이사의 말이다.

권 대표이사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군복무를 마치고 하남시에서 직장생활 15년만에 (주)S&K를 포천시 자작동에 부지 1천여평, 건물 390평의 규모로 설립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된다"를 생활신조로 회사를 경영해온 권 대표이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송영필 공동대표와 회사를 잘 경영하고 있는 것도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주)S&K의 주요 생산품목은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포장에 필수제품인 P.P Multi-Filament Yarn, 섬유보강재이며 생산량의 60%는 수출하고 40%는 국내 각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송영필 대표이사의 탁월한 영업능력과 권 대표이사의 신제품 연구활동이 조화를 이루어 (주) S&K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권 대표이사는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역의 각종행사나 단체,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권 대표이사는 날카롭게 지적한다. 일례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발급이 지연된 적이 있다.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집을 부리는 행정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한다.

권 대표이사는 (주) S&K의 사업적 비젼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노력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밝힌다. 거래처를 다 알 고 있고 이 거래처와 그동안 믿음하나로 거래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거래처의 경우 남을 속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편법을 사용한 업체는 결국 망하고 말았다며 늘 성실한 믿음으로 거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다.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총무로서 "최근 포천신문이 괄목상대하게 발전하는 것을 느끼며 보람을 갖게 된다"며 "운영위원들이 각자 사업에 충실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이사는 포천신문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인들의 모습을 잘 섭렵하여 보도하여 주기를 바라고 편중된 시각을 올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편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정론지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성실하고 올곧은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골프 구력이 15년인 권 대표이사는 "골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운동"이라며 다양한 사람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한다. 골프장에서는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업종을 다 만날 수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권 대표이사는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총무로서 운영위원에게 바라는 사항은 "운영위원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두각을 나타낸다면 소속돼 있는 포천신문사도 자연스럽게 발전되고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중소기업인으로서 지역신문사 운영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권 대표이사의 모습에서 포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비젼을 읽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남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된다"

지역경제인들의 애환을 밀도 있게 보도해야

불법 광고물 신고자 보상금 지급

포천관내 전지역 대상 건당 최고 2만원

포천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내걸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포천시민들이 불법으로 부착한 프랭카드를 비롯한 퇴폐전단, 불법 벽보 부착자를 신고하거나 수거할 경우 건당 최고 2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포천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폭6m 대형 프랭카드 1천원, 폭2.5m 소형 프랭카드 500원, 벽보 1매당 200원, 퇴폐전단(스티커 포함) 1매당 50원, 불법 벽보 등 부착물·배포행위자 최초 신고자(검거 시) 2만원 등을 지급한다. 또 보상대상 광고물은 가로수, 가로등주, 지주이용, 상가 등 건물에 부착된 프랭카드와 벽보, 유흥업소 주변 퇴폐전단 등이다. 다만 부착되지 않았던 벽보 및 전단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부착했던 프랭카드, 시청에 신고를 받고 설치한 행정용, 각종 문화·체육행사 안내, 선거용 프랭카드, 타 시군에서 설치되었던 광고물(프랭카드, 벽보, 전단 등)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처는 시청과 각 읍·면·동 사무소이다.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청 건축과 538-2476~8으로 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인	구봉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집국장	김영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쇄인	김규석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